
원발성 하지정맥류의 임상적 고찰과 진단 및 치료결과에 대한 혈관 검사의 유용성

삼성서울병원 혈관외과 혈관검사실

김도율, 이철형, 장영삼, 김동익, 이병봉

목 적 : 하지정맥류는 병인에 따라서 원발성과 이차성으로 구분한다. 원발성 정맥류의 원인은 아직까지 불분명하나 판막부전과 혈관벽 이상을 일차적 원인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 종류는 다양해서 혈관직경에 따라 모세혈관 확장증(0.1~2.0 mm), 망상 정맥류(2.0~4.0 mm), 표재성 정맥류(2.0~8.0 mm 혹은 그 이상)로 분류한다. 종류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양하고 치료를 위해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므로 논 연구에서는 적합한 비침습적 혈관 검사법의 소개를 통한 정맥류 진단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.

대상 및 방법 : 문헌을 통한 참고와 본 검사실에서 사용중인 혈류장비를 이용한 검사방법의 소개 및 치료 전후 성적을 비교하는 후향적 평가를 시행하였다.

결 과 : <혈류 검사의 정상범위>

이중 초음파 검사 (Duplex scan) :

Normal diameter - GSV1 (saphenofemoral junction) ; 0.46 - 0.10 cm

GSV2 (mid-thigh) ; 0.37 - 0.09 cm

GSV3 (above knee) ; 0.37 - 0.10 cm

GSV4 (below knee) ; 0.31 - 0.08 cm

Reflux time - 0.5 sec 이상

공기압 혈류량 측정기 (Air-plethysmography) : VFI - 2.0 ml/s 이하

EF - 40% 이상

RVF - 35% 이하

결 론 : 생활양식의 변화 및 경제적 여건향상과 더불어 질병인식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하지정맥류는 침습적 검사인 정맥촬영술 외에 비침습적 혈관 검사로도 안전하고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 치료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.